

재점검의 달

세상의 소금과 빛이되는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성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나는 보기 좋게 포장하여 예배하려 하나
주는 있는 그대로 다 꺼내 놓으라 하신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새끼야 사방에서 와서...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 37:9

새로운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채

새 점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예 배 WORSHIP

June 20, 11:30 a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하나님 앞으로	사역과 행사 안내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구은강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아모스 1:1-2, 7:10-15 아모스 선지자의 충성된 사역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 찬송 384장 -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통일찬송 434장)
헌신과 나눔	봉 헌 / 박진성 집사, 오정은 집사 *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삶과 세상으로	* 보냄의 찬양 / 찬송 430장 -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 3절 * 축 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 요 찬 양 예 배

합심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에베소서 1:7-14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6월은 “재점검의 달” 2021년 후반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풍성히 누리도록 말씀과 기도생활을 새롭게 합니다.

- 2021년 표어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해”
주제 말씀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붙어서 살아나게 하라”(에스겔 37:9)
- 성도의 사명 말씀과 묵상, 기도와 순종, 나눔과 격려를 통해,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사명**을 감당합니다.
- CUMC 사역재계 7월 4일부터 **주일예배**를 **1층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 CUMC 친교실 오늘 예배와 친교 후 정리와 정돈에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 사역 정상화 다음주일 6월 27일 주일부터 **2층**에서 **예배와 친교, 성경공부**와 사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 2세 신앙교육** 더 나은 youth ministry 를 위해 기도하고 협력합니다.
- 여름방학** 방학을 보람 되게 보내도록 관심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 성경 읽기** 교회 웹사이트에 매주 성경읽기/문제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섬김이: 장경미 사모, 성경공부/박진성 집사, 웹사이트) 말씀 공부에 힘 더욱 씁시다.
- 기도** 토요일 새벽 기도(오전 7시)에 참여합니다.
- 치유, 회복, 나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6월의 사역 - 세상의 소금과 빛된 주간(20-26) 보훈의 날(25)
선교 주일(30) 선교 주간(27-7/3)

♥ 6월 생일축하 ♥ 홍은솔(7) 김영준(8) 오승국(15) 이정연(24)

예배와 양육, 말씀과 기도, 교제와 나눔으로
세상과 이웃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건강하게 성장하는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 제목

-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 주중 성경연구(화 & 목 / 이사야서)의 발전을 위해

예배 섬김이

주일예배기도	6/20	6/27	7/4	7/11
	구은강집사	김훈태집사	최내권집사	최선운집사
주일헌금위원	6/20	6/27	7/4	7/11
	박진성집사/오정은집사		유덕하집사/구은강집사	
주일안내위원	6월		7월	
	김훈태집사		최내권집사	

말씀노트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 요엘 3:17-21

메뚜기 재앙, 가뭄과 화재로 큰 고통을 겪는 유다 백성들에게 요엘이 외친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돌아온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는 것이었다. 물질의 복과 영적인 복에 더하여 하나님은 영원한 승리의 복을 주신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적 필요를 아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돕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잇고, 감사하기 보다 불평을 많이 하는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영적싸움을 싸우고 있다. 때로 영적 전투에서 무력하게 패배할 때가 많지만, 사실 최후 승리는 성도의 몫이다. 그러니 영원한 승리에 대한 약속을 굳게 붙잡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

아모스 선지자의 사역과 충성 / 아모스 1:1-2, 7:10-15

아모스는 누구였나?

그의 시대는 어떠했나?

아모스의 사역은 무엇이었나?

아모스의 순종은 어떠했나?

순종하기 위해 무엇을 내려놓으며, 충성하기 위해 무엇을 희생하는가?

아모스 선지자의 사역과 충성 / 아모스 1:1-2, 7:10-15

아모스는 유다 지파의 헤브론 근처의 고원지역 드고아에 살던 평범한 양치기였다. 제사장이나 권력층과 거리 먼 평범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당시 최강국 북왕국 이스라엘로 갔다. 아모스는 목숨을 내 놓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심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전했다. 아모스는 북왕국의 호세아와 요나, 남왕국의 이사야와 같은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이다. 호세아나 요엘 선지자가 심판 후의 회복과 축복에 관해 많이 예언한 반면, 아모스의 예언은 심판에 집중되었다. 즉,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패망을 외쳤다.

재앙과 심판을 전하는 아모스의 사역은 어떠했을까? 독특한 사역을 감당하였던 아모스는 고발당했다. 북왕국 역사에서 가장 부강했던 여로보암 2세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던 궁정 선지자도 아니면서, 왕의 죽음과 북왕국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던 아모스는 온갖 위협과 협박을 당했다. 궁정 선지자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남왕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며 목숨을 위협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한 아모스는 담대하게 대응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한 아모스의 충성과 순종을 기쁘게 받으셨다.

성도는 순종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배우지만, 교회 사역과 삶의 현실에서 순종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많은 경우, 우리는 손해 보지 않으려 한다. 나의 희생을 최소화 하려하고, 내 것과 내 생각을 내려놓기 힘들어 한다. 심지어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적으로 순종하려한다. 그러나, 아모스의 충성된 사역은 희생하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다는 진리를 가르친다.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무엇을 내려놓고 희생할 수 있는가? 죽음을 각오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실까봐 두려워하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적합한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시므로, 하나님의 맞춤형 순종 훈련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자. 충성과 순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가 되자.

말씀 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아빠도 한 입만 먹을 수 있을까

나는 아빠다. 나에게는 딸이 둘 있다. 둘 다 너무 예뻐서 간혹 녀석을 놓고 보곤 한다. 네 살 된 아이가 과자를 먹고 있으면 나는 가끔 이렇게 요청한다. “아빠 한 입만.”

아이는 사랑하는 아빠와 맛있는 과자 사이에서 한참 고민한다. 그러다가 용기를 끌어모아 아주 작은 조각을 하나 골라 건네준다. 아빠는 생각한다.

‘과자는 내가 사준 건데. 하나를 건네도 여전히 수십 개가 남는데. 아니, 봉지째 주더라도 또 사줄 텐데. 별것 아닌 일로 고민하는 이 사랑스러운 모습을 좀 봐!’

작은 손으로 간신히 과자 한 조각을 건네는 아이의 모습이 귀여워서 아빠는 웃으며 또 요청한다. “한 입만~.”

우리는 현금이나 구제를 할 때 종종 아이 같은 모습을 보인다. 아까워서 망설인다. 그럴 때는 다음 3가지 측면을 생각하자.

첫째,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으시다. 일단, 우리가 얼마를 내든 그것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액수다.

둘째, 나는 일부를 드리는 것이다. 십일조를 예로 든다면, 드리고 나서도 90 퍼센트가 남는다.

셋째, 드리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즉, 드리지 않은 90 퍼센트 역시 내 것이 아니라 창조주께 받은 것이다. 다만 위탁 관리 중이다. 처음부터 내 것은 전혀 없었다(욥 1:21). 이렇게 보면 무엇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거만한 말이 되고 만다. 원래 전부 하나님의 소유였으니 말이다.

우리의 아빠는 창조주시다(롬 8:15). 나의 건강, 시간, 에너지, 경험, 부동산, 동산, 가족 등,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어떤 것이든

실상은 그분에게서 온 선물이다(욥 41:11).
어느 것 하나 받지 않은 것이 전혀 없다(고전 4:7).

우리가 그분께 '받은 것'을 계속 헤아려보라. 점점 더 놀라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것이 받은 것들이다. 그중 가장 가치 있는 한 가지를 떠올려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 요 3:16

그리스도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 일단, 그분은 인간이 값을 치르고 구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시다 (행 8:18-20). 그분보다 더 가치 있는 재화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분은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되신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 롬 5:8**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죽게 하시기까지 하신 사랑이다.
크리스천은 정말, 다 가졌다.

송준기,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분들

-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 BIBLE STUDY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장영현 전도사
- SUNDAY SCHOOL 김진속 전도사



“너희는 내 영혼을 찾으라 하시길 내 영혼은 내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마음에 품은 것이 다 주의 영혼이다.”

시편 27편 8절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 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주 일 학 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성 경 공 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